



남산의 겨울철새 상모솔새

2016년부터 2021년까지 남산에서 확인한 조류는 약 100여 종입니다.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새로운 새들이 남산을 찾아오고 떠나가기도 합니다. 겨울이 되면 남산을 찾는 20여 종의 겨울철새 중에 '상모솔새'라는 새가 있습니다.



정수리에 상모 모양의 노란 깃털이 돋보이는 상모솔새



솔 씨(소나무 씨)가 좋아요~!

'상모솔새'라는 이름

[글 / 사진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여가과]

'2030'세대에게는 상모라는 말이 낯설겠지만, 농업사회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단어입니다. 풍물놀이를 할 때 쓰는 모자 전체를 '상모'라고 하며, 모자의 꼭지에 달린 깃털이나 흰 종이를 말하기도 합니다. 정수리에 상모 모양의 노란 깃털이 '상모'와 닮아 **상모**, 솔 씨(소나무 씨)를 즐겨 먹기에 **솔새** ... 그래서 상모솔새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. 실제 상모솔새도 소나무가 많은 남산에서 소나무 씨앗을 먹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.

소나무를 좋아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새



9cm(부리 끝에서 꼬리 끝까지)



상모솔새는 우리나라를 찾는 새 중에 가장 작은 새입니다. 몸길이(부리 끝에서 꼬리 끝)가 9cm 정도입니다. 작은 몸집에서 나오는 고음은 놀라움을 자아냅니다. 겨울 철새이지만 [남산 기준] 10월 11일경에 도착, 4월 11일까지 머문 적도 있습니다. 올겨울 남산의 소나무에서 상모솔새를 찾아보세요. 작고 소중한 상모솔새가 놀라지 않도록 조용히~!